

# ICT산업 2020년 3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
---

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3779-6656)

---





## < 요약 >

### **(반도체) 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상반기에 강세를 보인 서버 수요는 감소했으나 모바일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 기록**

- (세계시장) 3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0.7% 증가한 175억 달러, 낸드플래시는 전년동기 대비 25.5% 증가한 145억 달러 기록
- (가격) 서버 수요둔화 등으로 3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견조한 모바일·PC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6% 이상 높은 수준 형성
- (수출) 3분기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증가, 미국 제재 발효전 화웨이의 반도체 선구매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.7% 증가한 258.5억 달러 기록

### **(디스플레이) 3분기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TV·IT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% 성장**

- (세계시장) LCD는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PC 등 IT패널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7%, OLED는 TV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% 성장
- (가격) LCD TV 패널 가격은 견조한 TV 수요, 주요 기업의 IT패널 생산 확대 등으로 상승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 공장 양산 효과 등으로 인해 하락
- (수출)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의 LCD 생산능력 확대, 모바일용 OLED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1.8% 감소한 54.6억 달러 기록

### **(휴대폰)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나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.3% 감소한 3.5억대 기록하며 회복**

- (세계시장)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역봉쇄 완화,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인도, 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분기 대비 27% 증가
- (기업) 삼성전자 IM부문 매출은 신모델 출시, 미국·인도 등에서 선전으로 전년동기 대비 4% 증가, LG전자 MC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수준을 달성했으며 손실규모는 전분기 대비 축소
- (수출) 3분기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% 감소한 26.7억 달러 기록

## I. 반도체

**(세계시장)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상반기에 강세를 보인 서버 수요는 감소했으나 모바일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**

- 3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0.7% 증가한 175억 달러, 낸드플래시는 전년 동기 대비 25.5% 증가한 145억 달러 기록
- 데이터센터의 반도체 재고조정으로 서버용 D램과 SSD(Solid State Drive)<sup>1)</sup> 수요는 감소했으나 PC·모바일용 수요는 증가
  - 2분기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IT공급망 붕괴를 우려한 기업들의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재고축적 수요가 발생했으나 3분기에는 재고조정 등으로 서버용 수요 둔화
  - 세계 PC 출하량은 2분기부터 재택근무, 원격교육 등이 확산되면서 증가, 3분기에도 견조한 PC 수요로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% 증가
  - 모바일용 수요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, 5G폰 출하량 증가 등에 따라 증가
  - 신규 게임 콘솔(11월 출시)이 최초로 HDD 대신 SSD를 탑재하면서 SSD의 수요 다변화 지속<sup>2)</sup>
-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화웨이의 반도체 재고축적 수요 등도 반도체 수요 견인
  - 미국은 전세계 기업이 미국 기술(장비, SW)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강화된 규제안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선구매 수요 발생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자료: Trendforce.

1) 낸드플래시가 핵심 부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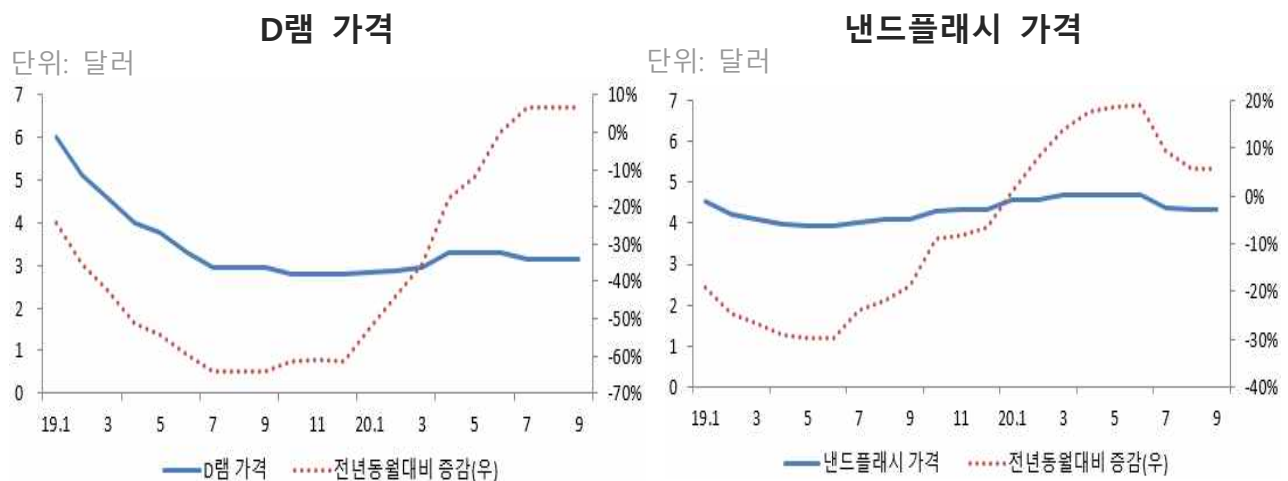
2) 게임 콘솔의 SSD 용량은 소니의 Play Station 5는 825GB, 마이크로소프트의 X box 시리즈 X는 1TB(=1,024GB)



**(가격)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견조한 모바일·PC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6% 이상 높은 수준 유지**

- D램 가격은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1월부터 상승하면서 6월에 전년동월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3분기에는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
- D램 수요의 35~40%를 차지하는 서버 D램 평균 가격은 1분기 상승, 2분기 보합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% 하락하면서 3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% 하락
- 상반기 D램 가격은 코로나19로 서버 수요, 재고축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3분기에 D램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준 유지
- 3분기 낸드플래시 가격도 전분기 대비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전년동기 대비 7% 높은 수준 유지
-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(128Gb MLC<sup>3</sup>)은 3~6월에 4.68달러 수준 유지했으나 7월 4.39달러, 8~9월은 4.35달러로 하락
- 4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하락세 지속 예상
- 4분기에는 화웨이 수요가 사라지면서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 9% 하락이 예상되나 화웨이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수준 유지 예상
- 낸드플래시는 4분기에도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가격하락 압력 지속

\* Sufficiency ratio(공급/수요): (2분기)△0.8% → (3분기)1.5% → (4분기 예상)1.3% (Trendforc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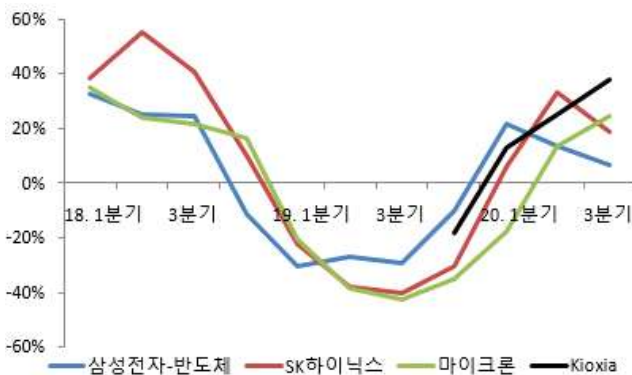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 고정거래 가격 기준.  
자료: Trendforce.

3) 낸드플래시는 Cell에 저장되는 bit에 따라 SLC(Single Level Cell, 1bit), MLC(Multi Level Cell, 2bit), TLC(Triple Level Cell, 3bit)으로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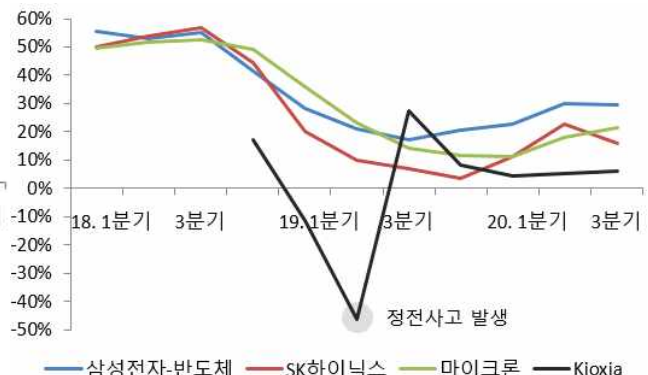
## (기업) 주요 반도체기업은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요 회복, 원가절감 등으로 양호한 실적 기록

-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감소
  -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.9% 증가했으며,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.7%,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모바일 수요 회복에 따른 이미지센서 등 수요 증가,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으로 4.4% 증가
  - SK하이닉스는 모바일 수요 증가, 신규 게임콘솔용 SSD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9% 증가
  -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4% 증가했으며 한국기업과의 회계기간 차이(6~8월, 6월 수요 양호) 등이 영향을 줌
  - Kioxia는 낸드플래시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은 모바일·SSD 수요 증가, 대만 LITE-ON Technology의 SSD 사업부 인수(7월 완료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% 증가
- 주요 메모리반도체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율(양품 비율) 향상 등으로 16% 이상 기록
  -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75% 증가했으나 낸드플래시 사업은 128단 낸드플래시의 수율 개선 등이 가격하락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여 영업손실 지속
    - \* 6월말부터 128단 낸드플래시 양산 본격화
    - \*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영업이익률: (2분기)△9% → (3분기)△19% (Trendforce)
  - Kioxia는 4분기만에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은 6% 수준 기록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1)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, 마이크론의 3분기는 6~8월 기준.

2) Kioxia는 2019년 3월, 도시바에서 분사되어 설립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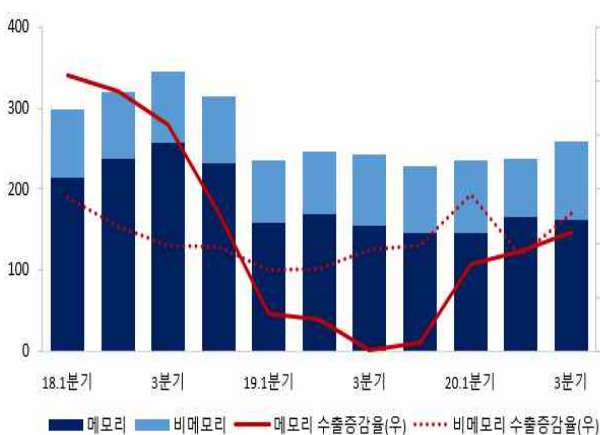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## (수출) 3분기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증가, 미국 제재 발효전 화웨이의 반도체 선구매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.7% 증가한 258.5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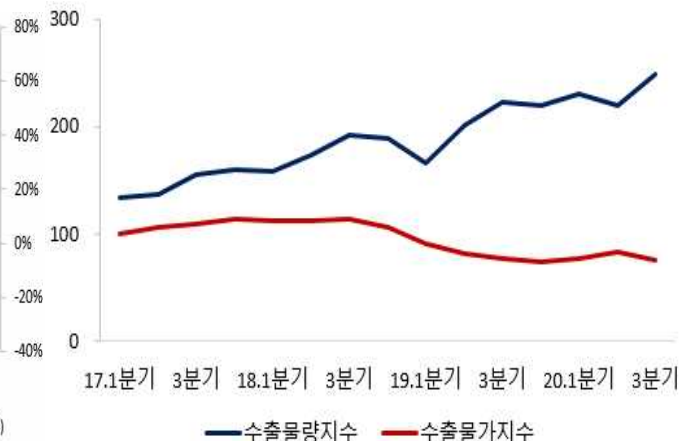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.3% 증가한 162.3억 달러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.0% 증가한 96.2억 달러 기록
-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, 베트남, 미국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.8% 증가하며 반등
- 대중국 수출은 미국 제재전 화웨이의 반도체 선구매,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구매 수요 등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
  - \*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(%): ('19.4분기)△26.5→('20.1분기)△0.3→(2분기)△5.9→(3분기)2.8
- 우리나라 기업의 IT 생산 기지인 베트남 수출은 9.9%, 미국 수출은 27.3% 증가
- 3분기 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76으로 전년동기 소폭 낮은 수준이나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상승세 유지
-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D램(30%)의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낮지만 상승추세, 플래시와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준 유지
  - \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:('19.3분기)222 → (4분기)220 → ('20.1분기)230 → (2분기)219 →(3분기)249
  - \* 반도체 수출물가지수: ('19.3분기)77 → (4분기)74 → ('20.1분기)76 → (2분기)82→ (3분기)76

반도체 수출 추이

단위: 억 달러



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1)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·개별소자(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)를 포함.

2)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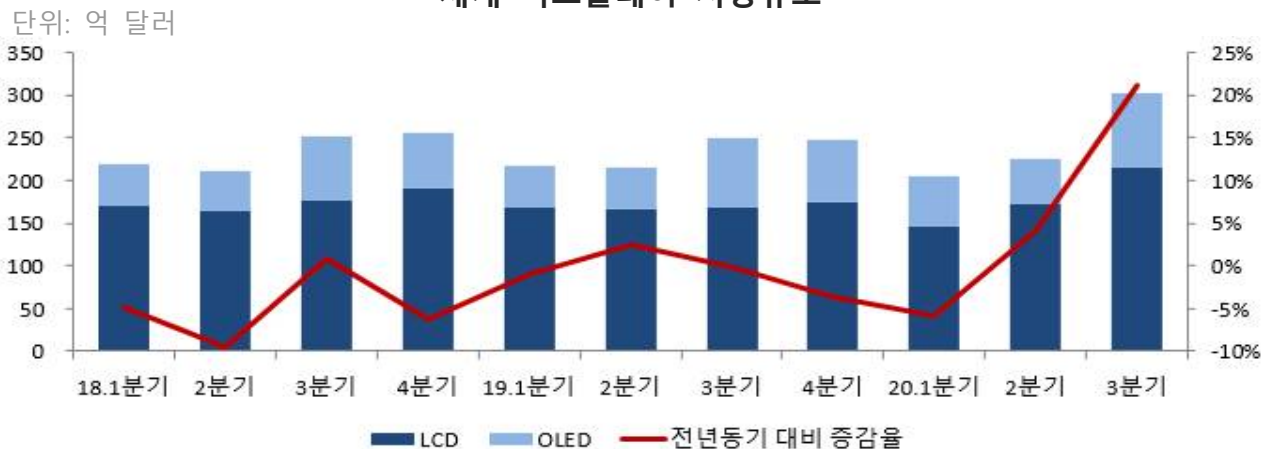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

## II. 디스플레이

### (세계시장) 3분기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TV·IT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% 성장

- (LCD) LCD 시장은 재택근무, 온라인 교육 확대 등으로 노트북·PC 모니터·태블릿 등 IT 패널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7%, 전분기 대비 25% 증가
- TV 패널 출하량은 TV 수요 증가, 패널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구매 수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5% 증가, 대형 패널 선호로 면적기준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9% 증가
  - TV 수요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2분기부터 재택 체류 시간 증가 등으로 증가했으며 3분기에도 북미 중심으로 수요 견조
    - \*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.9%, 전분기 대비 38.8% 증가(Trendforce)
- IT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6% 증가했으며, IT패널 수요 증가로 주요 기업은 LCD TV 패널 생산라인을 IT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면서 TV 패널 가격 상승
  - 중국 1위와 2위인 BOE, China Star가 8.5세대 TV 생산라인을 IT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
- (OLED) OLED 시장은 TV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% 성장
- 스마트폰용 OLED 시장규모(매출 비중 약 80%)는 전년동기 대비 약 2% 증가했으나 TV용 OLED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5% 증가
-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 규모는 아이폰 신모델 출시시기 지연(3분기→4분기)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4분기에는 큰 폭의 성장 예상
  - 아이폰11은 3개 모델중 2개 모델이, 아이폰12는 4개 모델 모두 OLED 패널 탑재
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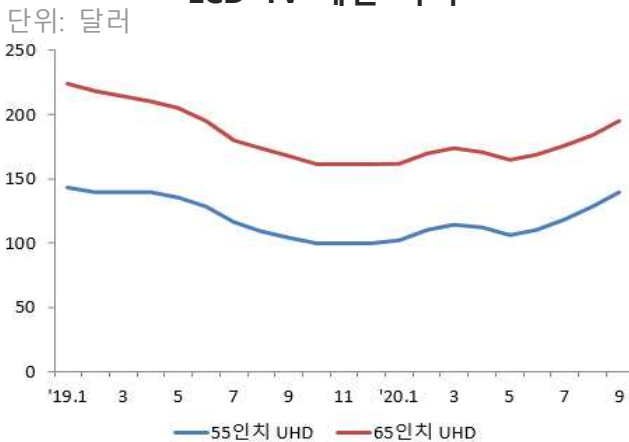
자료: 옴디아.



**(가격) 3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견조한 TV 수요, 주요 기업의 IT패널 생산 확대 등으로 상승,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 공장 양산 효과 등으로 인해 하락**

- (LCD) 견조한 TV 수요로 3분기 LCD TV 패널 가격이 상승, 4분기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 도래, 중국 상위 디스플레이기업의 지배력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 지속 전망
- (수요) TV제조사는 2분기 TV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3분기 패널 재고수준이 낮아지면서 패널 구매 확대
  - TV제조사는 소비자의 재택 체류시간 증가,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 증가, 여행 등 외부활동 감소로 TV 구매 여력 증가 등으로 TV수요가 2~3분기에 반등하자 연간 TV 판매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패널 구매 확대
  - \* 중국 TV제조사의 3분기 TV 패널 구매는 전년동기 대비 20%, 전분기 대비 6% 증가
  - 4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따른 재봉쇄 등으로 재택체류 시간 증가, '21년 스포츠 이벤트(도쿄올림픽 등) 등에 대비한 패널 재고축적 수요 등으로 우호적인 수요 환경 예상
- (공급) 우리나라 기업의 LCD 구조조정으로 TV패널 생산 감소, BOE와 China Star도 8.5세대 팹(Fab) 일부를 TV패널 생산에서 IT 패널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패널 공급능력 감소
  - BOE와 China Star는 각각 CEC Panda의 LCD 라인(9월)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LCD팹 지분 인수(8월)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가격하락 유인 감소
- OLED TV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팹 양산 및 48인치 TV 패널 생산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,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
  - \* 대형 OLED 패널 제조사는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며 한국에서 55-65-77인치 TV 패널 생산

**LCD TV 패널 가격**



**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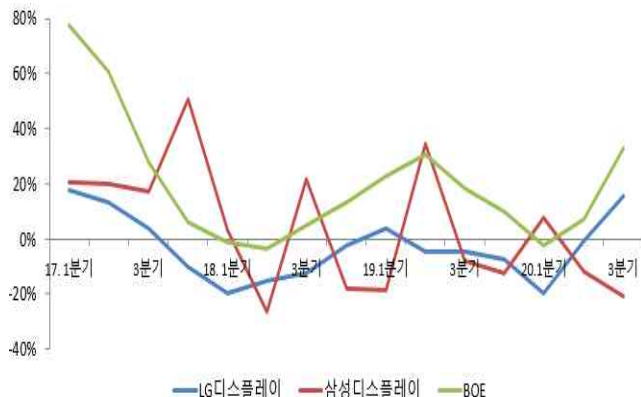
주: 3분기 OLED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추정  
자료: 옴디아.



## (기업) LG디스플레이는 견조한 TV·PC 수요, LCD 가격 상승 등으로 턴어라운드 성공

- (LG디스플레이)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6%, 전분기 대비 27% 증가한 6.7조원을 기록, 영업이익은 7분기만에 흑자 전환되며 실적 부진에서 탈피
  - 패널 출하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13% 감소했으나 면적당 판가는 TV·모바일용 OLED 패널 출하 증가, LCD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8% 증가
    - \* 3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: TV 28%, IT 패널 43%, 모바일 등 29%
    - \* 생산가능 capacity는 중국 광저우 OLED 팹 양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팹 다운사이징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% 감소
  - 영업이익은 모바일용 OLED 수율 개선 및 공급량 확대, 광저우 OLED팹 본격 양산 등으로 7분기만에 흑자 전환
    - \* 아이폰11부터 OLED 패널 공급사로 선정. 아이폰12는 4개 모델중 1개 모델에 OLED 패널 공급하며 수율 개선 등으로 전작대비 LG디스플레이의 공급량 증가 전망
- (삼성디스플레이) 아이폰 신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% 하락, 전분기 대비 9% 증가한 7.3조원 기록
  - 3분기 매출은 주력 제품인 OLED의 매출(매출비중 80% 초반)이 아이폰 신모델 출시가 전작 3분기에서 4분기로 지연되며 감소, 4분기에는 매출증가 예상
    - \* 아이폰12의 OLED 패널 최대 공급사
  - LCD는 초대형 TV, 고성능 모니터 패널 판매 증가,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 개선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1) 삼성디스플레이의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에는 애플이 발주물량이 적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(1조원 추정)이 반영됨.

2) BOE의 영업이익률에는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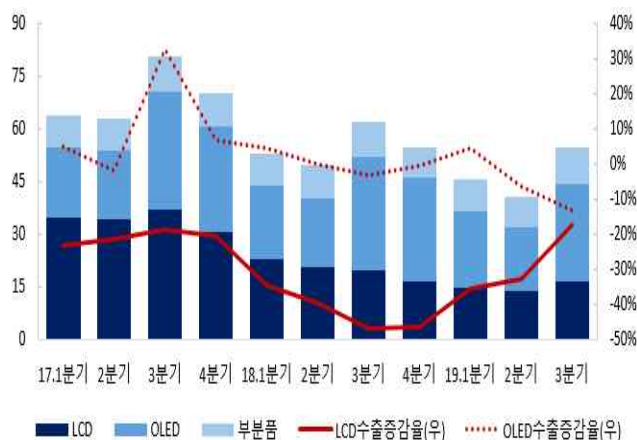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## (수출)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, 모바일용 OLED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1.8% 감소한 54.6억 달러 기록

- LCD 수출은 중국의 생산 확대, 한국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7.3% 감소한 16.2억 달러,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.5% 감소한 28.1억 달러 기록
- 아이폰 신모델 출시 시기 지연 등으로 플렉서블 OLED<sup>4)</sup>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 하락
- 베트남이 중국(홍콩 포함)을 제치고 최대 수출지로 부상했으나 베트남과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%, 4% 감소
  - \* 베트남은 우리나라 IT기업의 생산기지이며 디스플레이 기업의 모듈 공장 소재국
  - \* 국가별 디스플레이 수출비중: 베트남 (2분기)42%→(3분기)53%, 중국 (2분기)49%→(3분기)38%
  - 베트남은 OLED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.8% 감소
  - \* OLED 수출비중: 베트남 (2분기)62%→(3분기)75%, 중국 (2분기)35%→(3분기)23%
  - 대중국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%, OLED 수출은 26% 감소
-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73으로 전년동기 소폭 낮은 수준이며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2018년 4분기부터 하락세 지속
  - \* LCD 수출물량지수: ('19.3분기)32 → (4분기)28 → ('20.1분기)26 → (2분기)24 → (3분기)25
  - \* TV용 LCD 수출물가지수: ('19.3분기)64 → (4분기)58 → ('20.1분기)61 → (2분기)61 → (3분기)67
  - \* OLED 수출물가지수: ('19.3분기)84 → (4분기)77 → ('20.1분기)78 → (2분기)72 → (3분기)67

디스플레이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4) 리지드(Rigid) OLED는 디스플레이 유리기판을, 플렉서블 OLED는 폴리이미드를 사용



### Ⅲ. 휴대폰

**(세계시장)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에 역대 최대 하락폭인 △16%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기 대비 1.3% 감소한 3.5억대 기록하며 회복**

-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역봉쇄 완화,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인도, 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분기 대비 27% 증가
  - 세계 Top 3 시장중 인도만이 봉쇄 완화,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인한 온라인 판매 증가, 원격교육 수강을 위한 저가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 회복
    - \*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: (1분기)1.5%→(2분기)△50.6%→(3분기)16.5% (IDC)
  - Top 2 시장인 중국과 미국, 서유럽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화웨이의 공급 제약, 애플과 화웨이의 신모델 출시 연기 등으로 3분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
    - \*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): (1분기)1.5%→(2분기)△50.6%→(3분기)△14.3% (IDC)
  -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사용이 어려우며, 추가 제재로 9/15부터 미국기술로 생산한 반도체 구매가 어려워짐
  - 아이폰12는 전작대비 1달 연기된 10월에 출시되어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신모델 대기수요 등으로 감소
- 화웨이는 2분기에 세계 1위 사업자로 부상했으나 3분기에는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2위로 한단계 내려왔으며, 샤오미가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 3위 사업자로 도약
  - 화웨이는 중국내 애국소비 심리 약화 등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2% 감소
    - \*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율: (2분기) 9.5% → (3분기)△15.4%
  - 샤오미는 주력시장인 인도와 중국에서 선전하며 세계 스마트폰 3위 사업자로 도약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

자료: IDC.

## (기업) 주요 한국기업의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,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성장 성과 수익성 개선

- 삼성전자 IM(IT & Mobile Communication)부문 매출은 신모델(갤럭시노트20(8월) 등) 출시, 주력시장인 미국과 인도 등에서의 선전으로 전년동기 대비 4% 증가
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.9%, 전분기 대비 48% 증가
-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저가폰 판매 호조,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, 인도내 반중감정 고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8% 증가
- 영업이익은 부품 공용화 확대, 효율적 마케팅 비용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2% 증가
- 애플은 아이폰 신모델 출시 연기 등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10.6% 감소하면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.7% 감소

\* 아이폰 전작은 9월에 출시되었으나 아이폰12는 10월말에 출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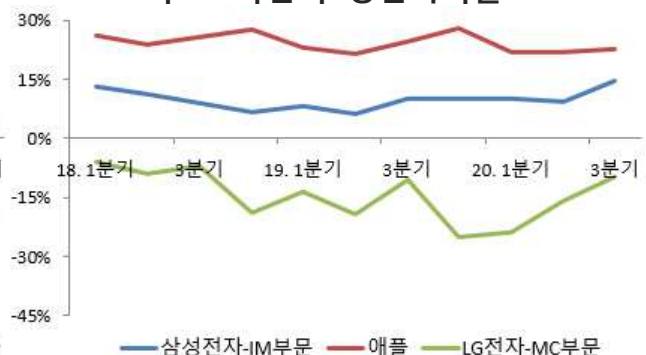
- 애플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아이폰 신모델 출시를 4분기로 연기했으며 아이폰12는 애플 최초의 5G폰으로 4분기 실적 반등 예상
-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미중갈등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8.3% 유지
- LG전자 MC(Mobile Communications)부문은 주요 시장인 북미, 중남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4G 칩셋 부족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전년동기 수준의 매출 달성에 그침
- 매출은 북미, 중남미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등으로 1.5조원 기록
- 영업이익은 평택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, ODM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손실 규모는 전분기 대비 축소

\* LG전자 MC부문 영업손실(조원): ('19.4분기)0.33→('20.1분기)0.24→(2분기)0.21→(3분기)0.15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(부문별 영업이익 미발표).
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## (수출) 3분기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% 감소한 26.7억 달러 기록

- 완제품 수출은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휴대폰 수출을 견인하는 부분품 수출(비중 66%)은 하락폭 확대
  - 완제품 수출은 신모델 출시효과, 평균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% 증가한 9.1억 달러 기록
  - 부분품 수출은 중국 등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0% 감소한 17.7억 달러 기록
    - \* 부분품 수출증가율: ('19.4분기)9.4% → ('20.1분기)4.9% → (2분기)△17.8% → (3분기)△20.3%
- 베트남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(홍콩포함),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  - 완제품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수출하락폭(전년동기 대비)이 2분기 44%에서 3분기 24%로 개선
  - 베트남 수출은 한국기업의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% 증가했으나 중국 수출은 수요둔화, 중국기업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5% 하락
- 3분기 휴대폰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90으로 전년동기 소폭 높은 수준이며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반등
  - \* 휴대폰 수출물량지수: ('19.2분기)63→(3분기)83→(4분기)85→('20.1분기)69→(2분기)56→(3분기)72
  - \* 휴대폰 수출물가지수: ('19.2분기)87→(3분기)85→(4분기)80→('20.1분기)80→(2분기)88→(3분기)90 (한국은행, 2015=100)

휴대폰 수출액

단위: 억 달러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  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